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1일 (윤달 5월 18일) 화요일

## 전남 '총무공 이순신 선양사업' 투자 인색하다



명량대첩 승전지 등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중요 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이 경남에 비해 '이순신' 관련 사업의 투자 규모가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공약으로 내세운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개 사업 642억 투입 풍부한 문화유적 보유 불구 경남도의 '절반' 수준 文대통령 '호국·관광벨트 조성' 공약 '전기'돼야

업'이 전남 지역의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지역에서 완료된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사업은 거북선 복원 사업 등 총 37개 사업, 총 64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남은 총 사업수와 예산투입에서 경남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사업은 이순신 국제리더십 센터 건립 등 총 47개 사업, 1175억원을 투입했다.

전남보다 사업수가 많은 것은 물론, 예산 투입도 2배 가까이 된다.

경남도는 김태호 지사 시절 이순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명량대첩 현장인 해남 진도 울돌목과 거북선을 건조했다는 여수 선소 등 이순신 관련 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반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수군의 주 활동지역으로 이순신관련 유적과 사료 등 문화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물 216명, 유적·유물 304건, 전승담 202건 등에 이른다.

다행히 '지난 5·9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전남으로선 정신훈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공약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시키고 지역 의병장과 민초들의 헌정, 선암을 통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 남부해안 10개 시군의 의병장으로 등의 구축을 위해 총 4717억원의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남이 이순신 선양사업에 있어 제대로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실행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만큼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을 방문한 정병현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이순신관련 유적 등이 가장 풍부한 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문 대통령 공약인 만큼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억울?

국인의당 박주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준용의 흑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더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고 비판했다.

박비대위원장은 이날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아직 다보지 못했다'며 '아마도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이 검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 같다'며 미묘하게 말했다.

박비대위원장은 '이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문준용을 주고받은 것은 5월 8일이다. 문준용의 조작된 제보가 발표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전인데, 어떻게 이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추 대표가 수사의 가이더라인을 정해서 검찰을 압박해 국민의당 축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스



이준서



박주선



추미애

## '멸종위기 날개하늘나리' 지리산 자락서 꽃망울

### 자생 꽃 중 유일하게 법정보호종...극소수 개체로 보호 시급

자생하는 꽃 중 유일한 법정보호종인 식물 '날개하늘나리'가 지리산 자락에 꽃망울을 터뜨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특별보호구역에 멸종위기 II급 식물 '날개하늘나리'가 개화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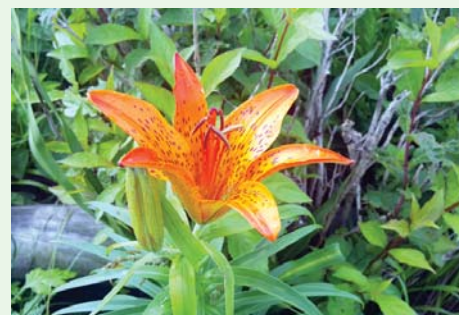
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종 중 유일하게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날개하늘나리'는 강원도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이북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극소수의 개체로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꽃잎이 하늘나리보다 넓어 날개를 단 것처럼 보여 이름이 붙여졌다.

날개하늘나리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1m에 달하며 줄기에는 좁은 날개가 달려 있으며 6~7월에 1~5송이씩 하늘을 향해 꽃망울을 터뜨린다.

최남규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특별보호구역에 멸종위기II급 식물 '날개하늘나리'가 개화했다고 10일 밝혔다.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심장질환	발생률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발생률	18%p 감소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